



전남도교육청, 목포고-여고 통합이설 답사

전남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 및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옥암지구로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지난 2월 목포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이설부지가 확보돼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이설의 최적 설계 반영을 위해 창원북면고와 창원남산고 답사를 실시했다. 답사는 학교 측 전문 강사의 설명과 안내로 운영됐다. 학교 건물 형태 및 시설물, 공간 배치 등과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질문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답사에 참석한 사전기획 협의체의 한 위원은 “현장의 우수학교를 직접 견학하고 생생한 실제 경험을 듣게 돼 뜻깊었다”며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통합고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굿네이버스, 동운어린이집 ‘좋은이웃’ 현판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는 ‘약속의 시작’에 참여한 광주 북구 동운어린이집(원장 박주하)과 ‘좋은이웃어린이집’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약속의 시작’은 유아교육기관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글로벌시대 공존과 공감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운어린이집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아동을 1대1 결연하며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는 ‘약속의 시작’에 참여했다.

박주하 동운어린이집 원장은 “비행기로 16시간 거리인 모잠비크에 직접 갈 수 없는데, 굿네이버스 호남본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결연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동운어린이집이 나눔에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광주 광산경찰,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30일 광산서 어울음에서 내·외부인원, 학교전담경찰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산경찰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제고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손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 물품과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3차 선도심사위원회에는 법률 분야 오희영 변호사, 김경숙 푸른나무재단 소장, 문숙희 광주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강사가 심의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절도, 사이버도박 등 16건에 대해서 변제 합의·재범 위험성, 생활 태도 등을 건별로 심의하고, 훈방·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광주전남센터에서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상철 기자**



제6회 아시아 심혈관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가 주도해 시작된 ‘아시아 심혈관심포지엄(Asian Cardiovascular Symposium)’이 지난달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다. (사진)

3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올해로 6회를 맞은 ‘아시아 심혈관 심포지엄’은 미국심장학회가 주관한 심혈관학회 사전 심포지엄으로 개최됐다.

ACS는 대한심장학회, 중국 심혈관연구학회, 일본 심혈관연구학회, 남아시아 심장협회가 매년 개별 및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ACS는 아시아 심혈관 연구자에게 과학적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영근 교수는 대한심장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장이었던 지난 2019년 당시 미국 내 한인 연구자를 대표해 미국 에모리대학교 운영 섭 교수와 함께 제1회 AC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노병하 기자**



충장축제 청년기획단 ‘전’ 발대식 개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최 기간 동안 활약할 청년기획단 ‘전’이 2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청년기획단 전은 진국이 라는 단어에서 착안해 ‘진(Jean)’을 입고 ‘전’한 기억을 남기며 ‘전하게’ 축제의 한 획을 그어줄, 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충장축제 활동가의 애칭이다.

이들은 충장축제 대표 ‘미래 기획자’로서 축제 기간 동안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콘텐츠를 기획부터 제작, 운영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10월2일부터 6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충장축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호남 엔젤투자허브, ‘엔젤웨이브 IR 캠프’

호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최근 담양 드몽드 호텔에서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와 스타트업 투자유치 연계를 위한 ‘엔젤웨이브 IR 캠프’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광주시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전남대학교 링크사업단,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했다. 스타트업 투자라고 불리는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게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이나 주요 창업 자원과 엔젤투자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지역 스타트업 기업은 투자에 소외돼 왔다.

이에 호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지역투자자와 호남권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매년 엔젤웨이브 IR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 인공지능사업단장에 오상진 고려대 교수

광주시는 인공지능집단지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3대 단장에 오상진(사진)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31일 밝혔다.

오 신임 단장은 1993년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장, 국가안보실 사이버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정보통신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독립된 부설기구



로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와 함께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총괄해 국가AI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 구축 등 인공지능 산업 기반시설(인프라) 마련과 인공지능분야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류 및 면접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실시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30일 북구 동림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범죄안전진단팀이 주민 일상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보안체계,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등을 고려, 범죄안전 사항 평가에서 총점 80% 이상을 충족하면 우수시설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우수시설 인증제도는 관리주체의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해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차복영 북부경찰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스타벅스 광주점, 판매 수익금 초록우산에 후원 윤여진(오른쪽) 스타벅스 광주점장이 나눔머그컵 판매 수익금을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제공**

뉴진스 ‘슈퍼내추럴’, 빌보드 글로벌 차트 5주 연속 진입

걸그룹 ‘뉴진스’(NewJeans·사진)가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에서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뉴진스의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은 ‘글로벌’(미국 제외) 32위, ‘글로벌 200’ 62위로 5주 연속 진입했다.

한국에서 발매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 수록곡들은 글로벌 차트에 9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타이틀곡 ‘하우 스위트’는 ‘글로벌’(미국 제외)과 ‘글로벌 200’에서 각각 50위, 88위를 기록했다. 수록곡 ‘버블



검’(Bubble Gum)은 ‘글로벌’(미국 제외) 148위에 자리했다.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슈퍼내추럴’은 빅스 주간 차트(7월22~28일)에서 4주 연속 1위를 지켰고 ‘하우 스위트’는 4위, ‘버블검’은 8위로 그 뒤를 이었다. **뉴시스**